

2026.09.06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나의 응답
본문: 사무엘상 1장1-18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사무엘상도 사사시대 연속의 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재앙 속에 있던 시대이다.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도 열방을 살릴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백성과 세상을 따라 가나안 족속을 따르고 여호와와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 의 이름으로 뒤섞인 우상숭배를 하며 단 어와 형식은 있지만 언약 없는 상황 속에 재앙과 고통 속에 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안타까움이 크시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여자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루트도 자기 위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 사사시대 끝자락에 또 쓰시는 한 여자가 있다. 한나를 통해 중요한 역사를 시작하셨다.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길 축원한다.

<본론>

1.마음이 슬픈 여자였던 한나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거처하는 레위인 엘가나와 결혼했다. 자녀가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 속에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를 통해 격분하며 울고 슬퍼

했다.[삼상1:15] 한나는 레위인의 가정과 결혼했지만 그 레위인의 사명은 없고 가정의 육신적인 갈등에만 휩쓸려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소개한다. 누구나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기 인생을 슬프게 본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다. 그것은 그 문제에 완전히 잡혀 있다고 내 인생이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절망을 느끼고 마음과 영이 병든 상태이다. 성도는 이러면 안 된다.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임신을 하지 못한 것 그것으로 인해 브닌나가 격분시키는 모든 것,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삶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삼상1:6]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가야 한다.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향할 때 나를 힘들게 한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다.

2.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사실

▶누구나 답답하고 어려우면 기도한다. 세상의 다른 종교도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굿을 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답답한 문제로 기도 하기도 한다. 한나도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며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다. 내 문제, 상처, 연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에 묶여 슬픈 인생이라고 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은 사사시대 끝자락이다. 사사시대의 문제와 재앙이 계속되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레위인들도 다 무너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언약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던 그 시대 한나의 가정도 그 속에 속해 있다.[삿21:25][삿2:10] 한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한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전달할 나실인으로 키울 기도를 간절히 드린다.[삼상1:11] 우리는 문제나 슬픔,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에 짓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 중에는 문제를 만나고 영이 죽은 것처럼 그 속에 함몰되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누구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다. 성경에는 그런 갈등과 회의감을 겪은 자들도 많이 나온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하박국이다.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이다. 정치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있던 때에 하박국은 갈등이 되어 하나님께 항변 한다.[합1:13,17] 이해되지 않는 당혹함 속에 믿음의 회의가 드는 그 때에 갈등에 빠져 있지 않는다.[합2:1] 그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 가진 자는 살 것이라 말씀을 주신다. 이 때 하박국은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 삶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게 되며 유명한 하박국의 고백을 하게 된다.[합3:17-18] 환경과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

을 회복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큰 응답을 받아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더 큰 응답을 받길 원하신다.

3.하나님의 큰 응답의 시작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시대 상황으로 인해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일로, 교회와 주의 종들의 문제로 갈등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을 닫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선택 해간다. 그러나 몇 사람은 달랐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다. 자기 인생을 흔들 위기 속에 있었지만 자기 소견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다.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역사 하신다.[렘33:1-3] 한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중요한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역사하셨다. 문제를 넘어 지도자 나실인을 응답하셨다.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그 도구로 분 내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 한나에게 있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응답을 위한 것이다. 사사시대를 종결시킨 사람, 사무엘이 여기서 나온게 된 것이다. 마음이 슬픈 자가 있습니까! 혹은 갈등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란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임하고 삶에 임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응답 받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길 축원한다.